<전 매체> 2022년 8월 19일(금)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 문의 : 전통시장육성과 김윤우 과장(044-204-7890), 장병석 사무관(7822), 고동혁 주무관(7892)

수해 발생 이후 9일, 전통시장 대부분 복구 완료

□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도권 전통시장 94.3% 복구 완료

□ 이영 장관, "추석 전 모든 피해 상인 정상영업 가능하게 살필 것"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당한 전통시장의 94.3%가 정상영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는 중기부가 자체 파악한 수도권 피해시장 70개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복구현황을 조사한 결과 66개 시장에서 모든 피해점포가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서울 지역의 4개 시장*만이 아직 일부 점포가 정상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결과이다.

* 복구 미완료 시장 : 성대전통시장, 관악신사시장, 영동전통시장, 남성사계시장

이 같은 복구 성과는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을 지키기 위한 상인들의 강한 의지와 중기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복구지원에 힘을 모았기 때문이다.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수도권 수해가 발생한 이후 중기부는 모든 지원역량을 총동원하여 피해시장의 복구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영 장관은 8월 10일(수) 서울 영동전통시장을 방문하여 '피해시장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피해시장이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도록 복구지원을 약속했다.

이후 관계부처, 소진공,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발표한 지원대책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겼다.

먼저 긴급복구비 지원(시장당 최대 1천만원), 전기시설 복구(점포당 최대 250만원), 안전점검 실시 등 피해복구 수단을 마련하였으며,

긴급경영안정자금(최대 7천만원, 연 2%) 및 특례보증(최대 2억원) 등 금융지원과 함께 일괄(원스톱) 이동지원센터*(수도권 총 11개) 운영을 통해 피해점포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고 있다.

* 유관기관(소진공, 지자체, 지역신보)과 협력, 피해신고 접수, 상담, 애로해결 등 지원

또한, 냉장고, 에어컨 등 전자제품 무상 수리(행안부), 군인·자원봉사자 등 긴급 복구인력 파견(국방부·행안부), 재해확인서 발급·재해구호기금 지원(지자체),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지원(행안부, 지자체) 등 중기부의 힘만으로 부족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영 장관은 8월 19일(금) 복구 막바지 중인 서울 남성사계시장을 찾아 "지난 10일 '피해시장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복구지원에 나선 이후 대부분 시장이 정상화되어 한시름 놓았다"라며,

"모든 피해시장이 추석 전까지 복구를 끝내고,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피해시장의 복구 완료 후에도 각종 행사(이벤트)(공연·경품 등), 무료 배송(9월), 우수 상품 특별 판매전(10월) 등을 통해 손님들의 발걸음 끊이지 않는 시장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장병석 사무관(☎ 044-204-78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